

直指

제10회 청주직지!

# 전국 구악 대제전

2018. 4. 20<sup>Fri</sup> 10:00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 주최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충북도지회 청주시지부

| 후원 | 충청북도 청주시 (사)한국국악협회중앙회 충북예총 청주예총





제10회 청주직지!

# 전국국악대제전

# 直指

## 대회사

### 제10회 청주직지! 전국국악대제전



“제10회 청주직지! 전국국악대제전”의 막을 올립니다. 청주에 오신 경연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주는 문화와 교육, 그리고 국악의 고장입니다. 지금부터 630여년전인 1377년에 세계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를 발명하고 발전시킨 고장이 바로 우리고장 청주입니다.

‘직지(直指)’는 “똑바른 손가락”이란 뜻으로 불가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비유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쓰는 말이며, 도를 깨친 옛 스님들이 남긴 말이나 수행 가운데 선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스님들에게 가르침이 될 만한 것들을 간추려 놓은 기록물의 이름입니다.

직지의 본디 이름은 백운화상께서 간추려 정리했다 하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인데 줄여서 “직지심체요절”이라고도 합니다.

고려 공민왕 21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펴냈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이며 그 자리에 지금의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서 세계기록문화에 크게 이바지 했으며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그 “하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랑스런 청주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직지 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통국악의 발전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국악인재의 발굴을 위한 등용문으로 “청주직지! 전국국악대제전”을 준비하였고, 최고의 권위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가해 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들을 마음껏 뽐내시어 본 경연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 꼭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회준비에 수고해 주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 지회장 **윤 순 병**





## 축사

### 국악, 민족적 심성을 가꾸는 예술



누구나 학창시절에 읽었던 나다니엘 호오돈의 소설 「큰 바위 얼굴」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동인물은 어니스트라는 정직하고 성실한 소년입니다. 어니스트는 마을 산 위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된 성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장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석양빛을 받아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어서 빨리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주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들어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어니스트야 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석양 무렵 등나무 그늘에서 마을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깊이가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짓 없는 삶에서 우리나라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니스트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해안을 가진 시인이 외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들 산하는 물론, 길 거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우리의 심성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충북예총의 각 단체가 치르는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사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심성과 문화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열 번째가 되는 충북국악협회의 <청주직지! 전국국악대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악의 더 큰 발전과 함께, 국악을 통한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 향상은 물론, 우리의 민족적 정서 함양에도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과 높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충북국악협회 윤순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총 모든 가족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충북예총 회장 **윤 순 병**

## 축사

###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문화 속에서 빛나는 날을 꿈꾸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中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줍니다. 또한 김구 선생께서는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직지의 고향 청주에서 제10회 직지전국국악대제전의 막이 오릅니다.

직지를 발명하고 발전시킨 고장, 청주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쇄물 발전에 가히 혁신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음악이자 우리의 열이 담겨 있는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통을 찾고 발전, 계승시키려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전통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성장될 밑거름이 준비된 고장, 청주!

오늘 저는 우리 전통의 문화로 세계문화 속에서 빛이 나는 날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청주에서 우리 전통문화인 국악이 더 크게 발전하고 나아가 전국,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 전통 음악이 널리 퍼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알차고 훌륭한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윤순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참여한 모든 분들 또한 더 나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청주예총 회장 **진 운 성**



제10회 청주직지!

#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장 찾아오는 길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청주 예술의 전당 TEL 043) 200-4421  
※자가용은 서청주IC, 청주IC에서 15분 소요, 택시는 터미널에서 20분 소요

## 2018 전국국악대제전 대회일정

### 4월 20일 (금) 제10회 청주직지! 전국국악대제전

- 개회선언, 내빈소개
- 대회장인사, 축하
- 심사위원소개
- 대회요강발표 / 심사위원장 심사규정발표
- 진행자소개
- 경연<기악/무용/성악/가야금병창/판소리/타악(연희)>
- 시상식 및 폐회

### 4월 21일 (토) 제25회 청주 박팔래! 전국학생 국악대제전 예선

- 개회선언, 내빈소개
- 대회사 / 축하
- 심사위원소개
- 대회요강발표 / 심사규정발표
- 진행자소개
- 예선경연

### 4월 22일 (일) 제25회 청주 박팔래! 전국학생 국악대제전 본선

- 본선경연<기악/무용/성악/가야금병창/판소리/타악(연희)/단체(연희)>
- 종합경연자발표
- 종합경연<기악/무용/성악/가야금병창/판소리/타악(연희)/단체(연희)>
- 박팔래 추모제
- 시상식 및 폐회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충북도지회 청주시지부

주소 2859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청주문화관 4층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청주시지부 전화 043) 257-6218 팩스 043) 257-6217

휴대폰 010-9597-1921(권수경 국악협회 사무처장) 메일 sopia1220@hanmail.net 연출·기획 지회장 윤순병, 사무처장 권수경